



## 코로나블루 확산과 보험의 역할

박정희 선임연구원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속칭 코로나블루(Blue)가 확산되고 있음. 이번 코로나사태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현 상황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속칭 코로나블루(Blue)<sup>1)</sup>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은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국립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가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sup>2)</sup>에서 응답자의 34%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보였으며, 감염자가 많은 주(州)일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60세 이상의 노년층(9~22%) 보다는 젊은 층(36~42%)과 빈곤층(최고소득 계층 6%~최저소득계층 23%)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남<sup>3)</sup>
- 일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함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52.3%로 코로나사태 이전 우울증 검사 결과인 2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sup>4)</sup>
  - 연령별로도 20대가 65.2%, 50대가 42.2%로 우울하다고 응답해 젊은 층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40대 한부모 가정의 우울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sup>5)</sup>

1)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의학용어는 아니나 코로나사태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하며, 이런 불안과 공포는 감염병 만큼이나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2020년 5월 7일~12일까지 4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가계의 고용상태, 소비지출, 식량부족, 주거안정, 교육중단,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 및 대책을 마련하기 시행된 설문조사임(<https://www.cdc.gov/nchs/covid19/pulse/mental-health.htm>)  
 3)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2020/05/26/americans-with-depression-anxiety-pandemic/?arc404=true>  
 4) 정신질환 검사기관인 재팬이노베이션(Japan Innovation)에서 2020년 5월 28일~6월 22일까지 일반인 7,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https://jp-inv.com/news/>)를 하였으며, 해당 사이트(<https://jp-inv.com/tool/>)에서 10분간 응답하는 방식임  
 5) 30~40대 일반가정의 우울 증증도는 8.0%인 데 반해 1인 2역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우울 증증도는 15.8%로 나타나

- 영국은 성인의 19%, 기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31%가 우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계층(18~24세)의 경우 32%가 2020년 상반기 코로나의 영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응답함<sup>6)</sup>
- UN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블루가 향후 정신질환의 팬데믹(Pandemic)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통합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 함<sup>7)</sup>
  - 미국은 응급상황에서도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하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있는 환자에게는 전화 상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도록 함
    - FDA<sup>8)</sup>는 우울증 장애, 정신분열증, 약물사용 장애 등과 같은 주요 정신질환자에 대해 디지털 치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규제요건을 일부 면제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련 앱을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 명상프로그램, 상담챗봇 등 사용자의 감정 변화를 분석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sup>9)</sup>
  - 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 정신건강이 불안하거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단지, SNS 상담, 통화 등으로 제공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있음<sup>10)</sup>
    - 정신질환은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치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상담서비스가 가능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처방된 약도 택배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영국정부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신건강 자선단체에 5백 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정신건강관리 플랫폼인 'Every Mind Matters'을 24시간 운영함<sup>11)</sup>
    - 영국의 Champion Health<sup>12)</sup>사의 경우, 학계와 공동으로 직장 내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최적화하여 동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함
- Gen Re 등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힘든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환경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6) 18세 이상의 영국 성인 4,294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18일~22일 정신건강재단(Mental Health Foundation)에서 설문조사(<https://www.mentalhealth.org.uk/news/millions-still-feeling-hopeless-lockdown-eases-new-briefing-mental-health-foundation>)하였음
- 7) United Nations(2020. 5. 13), "Policy Brief: COVID-19 and the Need for Action on Mental Health"
- 8) FDA(2020. 4), "Enforcement policy for digital health devices for treating psychiatric disorders during Coronavirus disease 2019 public health emergency"
- 9)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 장비 등 대장기기를 잠정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 규제 요건을 완화하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디지털 의료기기는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 가능하도록 함. 대표적으로 정신질환 약물처방이 가능한 Pear Therapeutics사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된 청소년 대상의 게임테라피를 활용한 디지털치료 방식의 Akili 등이 대표적임
- 10) 후생노동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こころのケア, [https://kokoro.mhlw.go.jp/etc/coronavirus\\_info/](https://kokoro.mhlw.go.jp/etc/coronavirus_info/))
-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advice-to-support-mental-health-during-coronavirus-outbreak>
- 12) 코로나사태 기간 동안 직원의 웰빙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디지털웰빙플랫폼 회사로 2020년 3월 이후 7,000개의 개인 신규고객과 400개가 넘는 기업이 등록하면서 확장세를 보임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상품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sup>13)</sup>

- 정신질환과 관련 보험상품은 장기위험평가 시 실제 위험 파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블루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현 상황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가 필수적이며, 보험업계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적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제공업체와 파트너십 관계로 고객들의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최근 출시된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인 ‘코로나지원보험(コロナ助け合い保険)’<sup>14)</sup>의 경우,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질병의 두려움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은 보험료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그 외 일반보험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존 가입된 개인보험 중 특정감염보상특약이나 소득보상보험 등으로 계약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주거나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방역에 동참하고 있음<sup>15)</sup> **kiri**

13) Gen RE(2020. 8), “Recovery impossible? Mental illness and ability to work”

14) 해당 보험은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의료종사자에 기부하고 있어 질병 시 보험계약자의 보장과 사회공헌을 실현해주는 상품임

15) <https://www.hokennavi.jp/cont/column-knowhow-042/>